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9년 5월 4일 (화) 제73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관> 발행인 조규필 편집인 겸 주간 고영훈 편집장 임승희 인쇄인 홍준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6(외)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061-4152, 4865 FAX 961-4153 (통인) 0335-330-4112 서울시 용산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란면 황산리 산 89

노동절 기점, 반정부 투쟁 확산

노동계, 구조조정·정리해고 계속시 반정부 총력투쟁으로 정면 대결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총력투쟁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로서는 국민적 시선을 집중시킨 노동절 10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지난 1일(토) 노동자, 학생, 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본대회에서도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는 계속 분출되었다. 이갑룡(민주노총 위원장)씨는 대회사 중 "정부가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오는 12일 금속산업연맹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파업을 시작으로 5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입금·단체협약 인정 및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등의 '4대 요구안'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대회가 끝난후 참석자들은 형형색색의 깃발을 앞세우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의 요구를 외면한 채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영준(민주노총 사무총장)씨의 사회로 진행된 본대회에서도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는 계속 분출되었다. 이갑룡(민주노총 위원장)씨는 대회사 중 "정부가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오는 12일 금속산업연맹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파업을 시작으로 5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입금·단체협약 인정 및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등의 '4대 요구안'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대회가 끝난후 참석자들은 형형색색의 깃발을 앞세우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5대 재벌 총수들의 얼굴에 검은 띠가 둘러져 있는 사진이 시선을 끄는 가운데 이갑룡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단체 대표들이 필두에 선 대원은 금속연맹, 공공연맹, 의료보원, 축협, 대학노조 등 각 연맹 노조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역에서 명동성당까지 끊이지 않는 장면을 연출했다.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등의 구호와 함께 김대중 정권 퇴진 등의 구호도 진면내 내걸린 가운데 진행된 행진에서 만난 사투노련 이계호씨(39, 남)씨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있는데 왜 정리해고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한총련 학생들이 가두선전장을 펼쳐자 남대문 시장과 명동성당 앞의 많은 시민들이 운집, 노동자와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기도 했다.

시위행렬을 지켜보던 김순호(48, 남)씨는 "말로만 들었던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지하철 파업에 불려간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화현역을 지나 신계개백화점 후문 고가도로 밑에서 경찰의 질서유지 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가 벌어져, 노동자 1명이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진투경찰과 페르포그를 동원하는 등 공안민을 투입, 평화시위를 명목으로 여자경찰을 앞세웠던 것을 무릅쓰고 있었다.

행진을 마친 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집회회를 진행했다. 1만여명의 한총련 학생들은 이후 명동성당에서 동대문운동장까지 가두선전장을 펼쳤다.

▶ 노동자 총파업 관련 기사 9면 김집성 기자



지난 1일(토) 금속연맹, 공공연맹, 의료보원, 축협, 대학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노조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비롯한 5만여명이 서울역에 집결한 가운데 109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May Day)가 열렸다. 이 날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등의 구호와 '김대중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서울역에서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정효정 기자

'등록금 10%삭감, 4년 동결' 협상 급행

대학당국, "등록금 삭감 불가, 복지개선안만 수용"

학기초부터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가 전개한 등록금삭감투쟁이 '등록금 10% 삭감, 4년 동결'을 두고 대학당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 총학생회는 지난 달 28일(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정기총회에서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데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총학생회는 "4개월동안 등록금삭감을 요구하며 민주남부들 통해 공약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며 투쟁을 전개해왔으나 학교측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더 이상 논리적, 이성적인 합법투쟁은 양해없이 합동시위장단 회의를 거쳐 '공탄자'를 재학생으로 인정' 하고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안한 교육부를 상대로 한 '시립학교 지원금 확보, 학자금확대'를 제외하는 등 등록금삭감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요구하는 등록금실질 삭감에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법원의 '기생법원, 법적 근거 여부'의 공판결과만을 남겨 두고 진행 중인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와 대학 당국과의 협상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총학생회는 30일(금) 동맹휴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맹휴업 성사를 위해 27일(화)부터 29일(목) 3일간 진행한 총 투표 결과, 투표율 4%, 유효 투표소 미달로 동맹휴업은 성사되지 못하고 총학생회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용인배움터 100여명의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일환으로 서울배움터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배움터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등록금삭감'의 정당성을 선전했고 또 같은 시간에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총정리와 명단을 진행했다. 대학당국은 이날 면담에서도 현시점에서 '등록금 10%삭감, 4년동결'을 불가능하다고 총학생회가 제시한 등록금 분할 납부기회와 학생용자 확대를 포함한 중앙도서관 확충, 셔틀버스 운행, 공대 소송 방지를 위한 법·외국차관 변경 등 복지 시간안을 받아볼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같은 날 (30일) 등록금삭감·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청년학생총본부 200여명의 학

생들과 함께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그러나 무장한 경찰에 의해 3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됐고, 이중 우리학교 임대권(인문·사학 4, 휴학생)과 이정원(사학·영양 4, 재학)은 조희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됐다.

우내나 기자

입원 신원발견자전

노동절 관련 조항 9월 4일자로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련법 많은 양해 바랍니다.

외대학보

트루먼들이여, 의심하라!

▶ 이름은 트루먼, 30살난 남자. 간조사인 아내와 살고 보현회사에서 일한다. 어릴 때 아버지의 역사현장을 목격한 뒤 물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 그러던 트루먼에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고, 난데없이 하늘에서 조망들이 떨어지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영화 '트루먼 쇼'의 이야기다. 주인공 트루먼은 무려 30년 동안 철저하게 연출된 각본에 따라 감독이 조장하는 대로 내맡겨진 채 살아간다. 그의 인생은 바로 '트루먼 쇼'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미디어의 홍수속에서 무력하게 허우적대는 현대인에 대한 풍자가 돋보이는 영화다.

▶ 사람이 살아가면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물론 아직까지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알고보면 허를 내두를 일도 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의 힘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면 더욱, 그리고는 곧 자신의 무력함과 지각의 한계에 대한 환란에 빠지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헛웃음을 치기도 한다.

▶ 열마진 지하실 총파업 기간 우리 정권의 각본과 인본의 감독하에 우리 무력한 국민들은 '총파업 쇼'의 주인공이 됐다. '시민의 발목잡는 총파업' '지하실 정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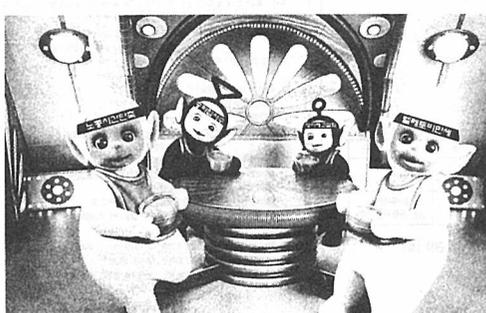
에 꼭 필요한 기관사 3백여명의 업무 복귀를 규합해가 막고 있어 사실상 감금상태 '노조측의 지하철 고고공작 의혹'등을 말하면 우리 트루먼들은 "그래,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집단이거주의 발상이야" '시민이 불평한다, 감하고, 난데없이 하늘에서 조망들이 떨어지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영화 '트루먼 쇼'의 이야기다. 주인공 트루먼은 무려 30년 동안 철저하게 연출된 각본에 따라 감독이 조장하는 대로 내맡겨진 채 살아간다. 그의 인생은 바로 '트루먼 쇼'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미디어의 홍수속에서 무력하게 허우적대는 현대인에 대한 풍자가 돋보이는 영화다.

▶ 사람이 살아가면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물론 아직까지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알고보면 허를 내두를 일도 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의 힘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면 더욱, 그리고는 곧 자신의 무력함과 지각의 한계에 대한 환란에 빠지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헛웃음을 치기도 한다.

▶ 열마진 지하실 총파업 기간 우리 정권의 각본과 인본의 감독하에 우리 무력한 국민들은 '총파업 쇼'의 주인공이 됐다. '시민의 발목잡는 총파업' '지하실 정삼화

텔레토비들의 파업

모든 모일 모일 아침 인제나처럼 아이들은 '꼬꼬마 텔레토비'를 보기 위해 세수도 안하고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안에는 어느때처럼 생기 발달하고 귀여운 텔레토비들이 아니라 머리를 동여메고 피켓을 든채 카메라를 향해 아무말없이 우두커니 서있는 텔레토비들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게 새로운 놀이인줄 알고 좋아했고 어떤 아이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슬기 지켰습니다. 다음날 신문은 이 놀라운 사태를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꼬꼬마 동산의 파업', '이들이를 배신한 텔레토비', '파업은 정말 시더시더...' 하지만 파업을 결행한 텔레토비들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텔레토비 파업을 하지 방송국은 분노했고, 부모들은 당황했으며, 아이들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텔레토비들은 그 다음날 텔레비전에 나와 목욕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텔레토비들의 파업이 계속되자 방송국인들은 회의감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텔레토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사회에서는 텔레토비들이 동상을 받기로 파업을 반대하고 비난했습니다. 로또로로는 선반 부모들을 출사시켜 텔레토비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심도했습니다. 뉴스는 텔레토비들을 텔레토비 파업을 하니 즉시 차단할것을 파업을 하면 아예... 조종했습니다. 방송국은 이걸로도 부족해 텔레토비배우들을 배후조종하는 아무도 세력이 없지는 우마를 퍼트렸습니다. 물론 텔레토비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자, 연기자, 유망한 선성남들의 지지선언도 있었지만 매일 방송국 화면에 등장하는 뉴스이 리 아이들의 얼굴속에 그런 목소리들은 파문어 버렸고 오히려 곳곳에서 파업집단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시위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텔레토비 기자지원을 열고 촬영타를 보였습니다. 나의 손주들은 텔레토비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힘입은 방송국은 즉각 파업정인 텔레토비들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방송국은 물론이고, 부모들과 전국의 인형제조업체들이 모두 현혹성을 질렀습니다. 대통령도 민생을 불했습니다. 신문은, 뉴스는, 부모들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예전처럼 행복할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해고된...
해고된 배우들의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의 부모인 배우들은, 그들 가족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텔레토비들이 등장하는 날 아침, 아이들과 부모들은 기대에 부풀어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타이틀이 끝나고 예전처럼 곱게한 물결이 흘러나오고... 어른들은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얼어있고그리고 이내 모든 집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알~ 저런 텔레토비가 아니었어, 저런 꼬꼬마, 으악~
어른들은 당황했습니다. 방송국이 당황했습니다. 대통령은 손주들을 달랠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몇일 후...
전국의 모든 아이들은 자신들이 기억하는 텔레토비를 둘러싸고 파업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전] 천우물
민중자주언론
외대학보

사설

교원 연봉제 신중을 기해야

교원 통계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대기업에서 연봉제 새로운 임금체제로 도입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이 연봉제와 형식적인 인사과제에 따른 정직제 임금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임금체제로 바꾸어 보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연봉제만 연봉제와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차등보상해 주는 임금체제를 말한다. 이 제도는 원래 회사 후계자를 원칙으로 하며 임직원의 업무능력을 당사자와 고용주가 동시에 평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협상하는 쌍방향 제도로, 외국 회사에 평가 당사가자 외환의 급변추세와 근무환경, 복지 등에 대하여도 상당한 요구하며 회사주의 입장에서 감봉요인에 대하여 일정한 징벌을 한 다. 그러나 이 제도가 노사간의 이익보다는 단지 임금과 고용 조건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제도가 교원에게 도입된다고 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교원의 통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봉제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무방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과를 임금인상에 연계시켜 동기 부여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가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한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초·중·고 교원과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저해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사학재단이 구성원 위에 군림하고 여가지는 우리 풍토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제도를 우선 세워야 하며 대안으로서 연봉제 도입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도입기 - 성숙기 - 정착기로 나아가 완만한 변화가 나타나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연봉제 실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계의 문화적 적합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계는 비교적 자율에 맡겨져도 좋은 집단이다. 교육계는 구성원의 양성에 호의적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차이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원연봉제 도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제 도입을 공개하고 이를 진급에 반영시키고 있다. 경쟁의식은 구성원 사이에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구성원 사이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 기업을 생산성 제고 논리를 교육계에 여과 없이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우리의 연봉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가 서구사회의 성과주의 및 개인주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지양하는 바가 점차 사학재단의 행정 편의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

음악의 소리

교육환경 개선만이 외대가 살길

외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 봤을 것이다. "외대 다니는 건 뭐가 좋을까?"

외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 봤을 것이다. "외대 다니는 건 뭐가 좋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것을 보면 과연 외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외대가 자랑하는 '사운드 라이브러리', '재팬 그릴' 같은 시설, 겨우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져다 놓고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외대는 겨우 20여년 남짓한 비록 과거는 7,000여명의 학우와 사립대학이 누려 오고 있다. 이런 열악한 학습 환경 속에서라도 갖가지 공부하는 외대생이 자랑스럽기만 할 뿐이다.

또한 전산실이나 학습실의 컴퓨터는 어떤가? 컴퓨터의 보급은 좋지만 제대로 된 컴퓨터는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듯 지양하는 달린다 -Who? -글씨 -국회의원이나 서기관

난 컴퓨터만 제대로 수리를 한다던 제 말을 하는 학우의 마음 또한 좀 더 이해가 된다.

세 번째로 학교에 붙어 있는 것은 심심할 때 학교의 폐쇄이다. 한 학기에도 수강신청이 적다는 이유로 수업에의 포박이 폐쇄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한 폐강 반대 운동도 있었지만 이것은 학생의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수강신청이 적은 전공목표 또한 폐강되어야 할까? 교수의 질을 떨어뜨리고 배울 기회 또한 박탈하는 학교의 이러한 행정 편의의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외대생 모두가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백주년기념관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많은 콘서트와 연주회가 열리고 있으며 세종대학교 대강당을 비롯한 여러 공연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 외대는 공연장도 갖가지 공부하는 외대생이 자랑스럽기만 할 뿐이다.

외대가 자랑하는 '사운드 라이브러리', '재팬 그릴' 같은 시설, 겨우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져다 놓고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외대는 겨우 20여년 남짓한 비록 과거는 7,000여명의 학우와 사립대학이 누려 오고 있다. 이런 열악한 학습 환경 속에서라도 갖가지 공부하는 외대생이 자랑스럽기만 할 뿐이다.

또한 전산실이나 학습실의 컴퓨터는 어떤가? 컴퓨터의 보급은 좋지만 제대로 된 컴퓨터는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듯 지양하는 달린다 -Who? -글씨 -국회의원이나 서기관

그렇듯 지양하는 달린다 -Who? -글씨 -국회의원이나 서기관

이 있는가 하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듯 그 외국의 소리가 도서관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도 있다. 게다가 도서관에 들어가면 배는 따귀끼리는 요란한 꾸투소리, 가장 개인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쓰러짐, 창가엔 담배냄새와 침, 바닥엔 커피 등이 고요하게 누워져 있어 학우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그 뿐 아니라, 신속정확한 학습자료 제공을 위해 설치된 컴퓨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오작동이나 제방을 장시간 즐기는 졸지각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나의 편미만을 생각하고 도서관을 대충보고도 그로 연세를 하여 단전에 대해 불만을 주면서, 짐과 자신이 찾는 책이 없으면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다. 얼마 전 주간가사 기간에 보고서가 쓰여져 도서관을 찾았다.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찾는 책마다 주요부분의 책장을 학생들이 마구 찢어서 읽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충분한 복사가 설치되어 있는

국내의 반도체업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지 않던 수준에 이르러 수출주도 경제체제의 견인차를 이를 만큼 중요한 위치에 도달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이 반도체 매출에 의존할 만큼 산업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 반도체 시장의 단지 5%의 일인인 메모리 관련 시장만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메모리 부문이 우리 국내 3개 회사가 노력하여 메모리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규모가 2배가 되는 메모리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물론 단지 10여년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세계메모리 산업의 선두자라는 국내 반도체 업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관련 부문을 가질만한 일이다. 하지만 단지 메모리 매출의 선두주자라면 만족하기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너무 크며 1등 기술력을 가진 업체만이 생존하는 첨단산업의 속성으로 볼 때 언제라도 선두를 주도할만한 위치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메모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증진 시키고 동시에 세계 기술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비메모리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시장의 일부분야라도 장악을 하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인 동안 메모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우리의 정원을 생각하면,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도 함께 성

태도 자신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무척 화가 났다. 게다가 비추된 도서관이 심하게 더운 것도 있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배는 따귀끼리는 요란한 꾸투소리, 가장 개인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쓰러짐, 창가엔 담배냄새와 침, 바닥엔 커피 등이 고요하게 누워져 있어 학우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그 뿐 아니라, 신속정확한 학습자료 제공을 위해 설치된 컴퓨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오작동이나 제방을 장시간 즐기는 졸지각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나의 편미만을 생각하고 도서관을 대충보고도 그로 연세를 하여 단전에 대해 불만을 주면서, 짐과 자신이 찾는 책이 없으면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다. 얼마 전 주간가사 기간에 보고서가 쓰여져 도서관을 찾았다.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찾는 책마다 주요부분의 책장을 학생들이 마구 찢어서 읽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충분한 복사가 설치되어 있는

국내의 반도체업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지 않던 수준에 이르러 수출주도 경제체제의 견인차를 이를 만큼 중요한 위치에 도달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이 반도체 매출에 의존할 만큼 산업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 반도체 시장의 단지 5%의 일인인 메모리 관련 시장만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메모리 부문이 우리 국내 3개 회사가 노력하여 메모리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규모가 2배가 되는 메모리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물론 단지 10여년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세계메모리 산업의 선두자라는 국내 반도체 업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관련 부문을 가질만한 일이다. 하지만 단지 메모리 매출의 선두주자라면 만족하기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너무 크며 1등 기술력을 가진 업체만이 생존하는 첨단산업의 속성으로 볼 때 언제라도 선두를 주도할만한 위치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메모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증진 시키고 동시에 세계 기술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비메모리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시장의 일부분야라도 장악을 하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인 동안 메모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우리의 정원을 생각하면,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도 함께 성

서에게 가보라!"는 말이 있다. 책에 나서고 중요부분을 찢어가는 이기적인 행동, 낱사지 자료제공의 구실을 못 하는 도서관 비추된 도서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휴대용 소리... 이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일 것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연세대학교가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에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이 뒷받침될 때 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정숙은 기본이고 대강독자 준수, 도서관 입장시 통신 기기 상태확인, 글쓴 등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외대학우들이 공부하기에 쾌적한 도서관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행차하는 자를 배려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여 길 줄을 이는 성숙한 의식과 태도가 필요할 때다.

이제가 (서양·독일어 1)

국내의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이성현 (전자공학 교수)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메모리 분야의 속성상 고려해야 할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 반적으로 메모리 산업은 공정기술 및 반도체 생산기술의 질에 크게 의존하며, 대규모의 설비투자 기간에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메모리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기반산업으로 광범위한 시스템 시장이 요구되며 개발과정이 신속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메모리 분야는 매우 중요한 산업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계 메모리 경기 사이클에 매우 민감한 메모리 산업과 달리 비 메모리 산업은 경기에 비교적 안정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 한국의 비메모리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이 서로 노력하여 경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메모리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빠 힘내세요

글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성공권을 지키겠다는 무명이 정리에 고 원인이 되어도 마땅한 일일까요?

자네가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사회대 새내기

그렇듯 지양하는 달린다 -Who? -글씨 -국회의원이나 서기관

아빠 힘내세요

평양지하철로 출근투쟁 -지하철이여 안녕

아빠, 정리에 대항자 말할 없을만한 사 람들로 뽑혀서... -원마생각

아빠지 사수대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투쟁! -해무리 94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설. 글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성공권을 지키겠다는 무명이 정리에 고 원인이 되어도 마땅한 일일까요? 자네가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사회대 새내기

아빠 힘내세요. 글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성공권을 지키겠다는 무명이 정리에 고 원인이 되어도 마땅한 일일까요? 자네가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사회대 새내기

국내의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이성현 (전자공학 교수).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메모리 분야의 속성상 고려해야 할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1999학년도 후기 대학원(주간) 신입생 특별전형 학생모집.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FLEX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99학년도 외국어능력검정시험(FLEX)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999. 4. 한국 외국어 대학교. 외국어 연수 평가원 장 교무처장

경제 직원 복직,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노동위 결정에 학내 구성원 "부당하다"

학교측, 복직결정 취소 요청·미복직직원, 복직 신청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해 제2단 푸른색으로 복직결정되었던 직원 15명이 제소한 복직신청이 일부 정당하다고 판단...

이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관성이자적인 이점의 활동을 인정할 정황은 대학측이 직원의 상황을 노동위원회에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

복직결정을 받은 직원 8명은 일단 지난 23일(금) 총무처에서 대기방편을 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명에 대해 밝힌 복직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학교에 대해 피해가 되는 행위를 했느냐 여부이다.

원인 대학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대학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승 살리기? 죽이기?

울진배출터 학생회관 앞에는 버스에 내리자마자 보여지는 쓰러진 장승이 미관을 흐리고 있다.

이제 출학생회측은 버리니, 동물학대 세운 우리학교 수호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승이 1년 전에 일출 총무부로 인해 사라졌으며, 이는 복원이 갈리는 정승제에 할

정승정기자

교수 1명대신 강사 22명(?)

강사 고용 불안, 교육안정성문제 심각

최근 시간강사에 대한 대학당국의 처우가 학사행정면이나 신분보장 측면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준원 6조(시간강사의 대치)에 따르면 교원정원(조교제의)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1인을 시간강사 3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다"며 "최저생활보장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직향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측은 2월말 수강신청이 끝나고 8월 개강을 하고 나서야 내가 맡은 강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학들은 이를 악용하여 정일교수 대신 시간강사 3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이 되지 않는 것과 맞물려 시간강사들은 신분보장 또한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소신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강사들의 강의는 폐강이 되어 회색은 시간강사의 몫이 된다.

서울배출터는 시간강사 18300원, 용인배출터는 교통비를 포함해 25000원으로 이는 5년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강사의 권익을 위한 일차적인 방안은 전국대학강사노조에서도 주장하듯 시간강사가 대학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우혜나기자

재 단투쟁 1년후 무엇이 변했나 - 직원편

직원 의견수렴 구조 한계 여전

학원 3주체가 최종 결정까지 함께 해야

글 심는순서

- 1 교수 2 직원 3 학생 4 총괄

직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서가 '거부반응'임을 상기한다면 직원들의 구약결정의 의지는 판단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재단투쟁을 계기로 직원들의 개혁의지가 높아지면서 직원도 학원 3주체의 입장을 관철 수 있게 됐다.

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원의 3주체 모두가 참여하여 의사수렴 뿐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우혜나기자

대학사회에서 교수나 학생의 역할은 비교적 뚜렷한 데 비해 직원은 단순한 교육활동의 보조로서 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인식되어 왔다.

재단투쟁을 계기로 직원들의 개혁의지가 높아지면서 직원도 학원 3주체의 입장을 관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재단투쟁 1년이 지난 지금, 노조로서의 전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목이 마련됐다는 것이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재단투쟁 1년이 지난 지금, 노조로서의 전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목이 마련됐다는 것이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학부제 반대 단식투쟁 벌인 박영준군을 만나

"사범대 준폐위기, 교과과정 개편이 우선"

대학당국은 올해 일부 단과대학에 학부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발했고, 사범대 학생회장 박영준(한교 3)군은 단식투쟁까지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제 반대 단식투쟁을 벌인 박영준군을 만나 학부제 반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박영준



사범대 학부제 논의과정은?

3월말에 학부제 실시계획을 알게 된 후 사범대 학생들과 논의해 학부제가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부제에 반대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범대 학부제에 반대했던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지 않은 것에서 일단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어떤지?

사범대 평가에서 우리 학교가 전체 사범대중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소수의 사범대만 남겨놓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 사범대는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부제 논의는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

있던 총회와의 면담을 통해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내내라도 다시 재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부제는 사범대와 같이 각 과



우리는 아무렇게나 요리되고 있는 것 같다

Advertisement for '자! 흙냄새 맡으러 갑시다' (Come, let's go smell the soil!) featuring a child digging in the soil. Text includes '푸르름이 넘치는 5월' and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3 하철 피업 보도 양태를 통해 살펴본 언론의 왜곡·허위보도 실상

그들에겐 일말의 기자양심도 없었다

무조건 받아쓰기, 추측, 조작으로 진실 은폐한채 국민 우롱... 제도언론, 권력의 하수인일 뿐

구태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개혁해야 공존지향의 노사정 관계정립이 가능해진다. (27일 대안매일, 사설)
 노사정 관계의 기본틀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 된다. (28일 동아일보, 동아광장)
 노동운동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7일 문화일보, 사설)
 배아픈 자상을 통한 변신의 진통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28일 세계일보, 사설)
 지난해 투쟁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거듭나는 변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28일 중앙일보, 사설)
 새로운 노동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한국일보, 정명수 칼럼)

계 획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최장급 교수에 대한 불온성 시비와 함께 제기되었던 조선일보 권파보도에 대한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는 언론이 지닌 구조적 모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등장한 미군정은 표면적으로 언론자유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좌익언론을 탄압하고 우익언론을 비호하는 형태의 언론정책을 전개했다. 군정은 방송 시설을 접수하고, 신문사와 통신사의 시설은 우익세력에게만 위임했다, 혹은 불하해 주었다.

또한 1946년 5월 29일 법령 제88호를 공포하여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미군정은 언론에 대한 법적, 정치적 통제에 더욱 강화하여 체제의 기반을 유지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의 언론은 반공과 친미이데올로기를 중심축으로 하는 구조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언론이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경우 무력적으로 정권을 잡은 자신의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을 철저히 이용, 장악했다. 언론인의 대량해고와 언론사의 통폐합이라는 대대적 조치, '언론기본법' 제정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광고수입으로 각종 매체가 운영되며, 그들 자신이 대기업(조선일보)이거나 한 대기업에 의해(삼성의 중앙일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체제는 자본 즉, 그들에게 광고수입을 안겨 주는 일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듯 권력과 자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언론의 구조적 모순은 이번 지하철 피업에 대한 왜곡보도에서도 너무나도 극명해졌다.

이들의 왜곡보도 형태도 받아쓰기, 추측, 조작, 악취만 부는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 22일자(목) 조선일보의 '기권사 3백명 농성장서 감금상태'라는 기사는 '받아쓰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즉, "지하철 선상화에 필요한 기권사 3백여명의 일부복귀를 규할대들이 막고 있어 사실상 감금상태"라는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담당한 조선일보의 김홍진 기자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지하철 노조위원들의 취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동성당의 농성자들은 자유롭게 외부출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연맹은 지난 23일(금)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

다욱 심각한 것은 언론의 여론조작이다.

언론은 지하철이 단속 운행된 지난 22일(목)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강조한 보도로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편견을 조성했다.

대한매일신문 23일(금) 1면 사정은 신문의 한 버스 장유자를 지하철을 놓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는 장면을 통해 시민의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버스 정류장은 원래 저녁때마다 길게



관세언론은 지하철 피업의 진실을 은폐한채 거짓보도를 유포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시민은 허위, 왜곡보도를 알삼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있는 지하철 피업 노동자 모습.

지하철 총파업 8일 제1차 4월 26일(화) 공적으로서 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을 일으키면서 각 일간지에서 내보낸 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다. 표면은 다르지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조의 반성과 변화에 대한 요구, 노(勞)측의 잘못과 변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는 지난 19일 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명동성당에서는 노조위원들이 일간지 기자들을 향해 "너희들 때문에 파업이 중단됐다"며 거세

한 발언을 하는 곳으로, 2호선의 단속운행과는 상관없는 곳이었다.

또한 각종 방송사마다 9시 뉴스 총파업과 관련된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시민불편에 관한 보도이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말만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나 각계의 지지성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민의 발을 불로 한 노조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파업에 맞든 캠퍼스...서울대 손해상환 청구방법'이라는 제목의 지난 28일(화)자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드러났다.

공권력 침탈을 피해 노동자들이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진입했음을 강조하면서 서울대의 손해배상 청구유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무차별 진압을 신변에 위협을 느낀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한 이유나 그 당위성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된 대매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통보식의 일방적 정타해고를 통한 생존의 위협이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건설부채인 지하철 직자를 임금상당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 지하철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탐들은 모른다.

즉, TV를 시청하고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사(社)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

출, 지하철 개혁'이라는 이들의 요구조건도 모른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하철 파업에 반감된 것까지 하고 있다.

언론은 "왜"라는 한마디를 은폐함으로써 지하철 파업을 중단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독자들의 눈과 귀를 담보로 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바로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출, 지하철 개혁'이라는 이들의 요구조건도 모른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하철 파업에 반감된 것까지 하고 있다.

언론은 "왜"라는 한마디를 은폐함으로써 지하철 파업을 중단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독자들의 눈과 귀를 담보로 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바로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2 대기권, 조선일보 항의방문

"제도언론은 권력의 시녀노릇 중단하라"

대학신문기자들, 관세언론 규탄하며 집회·항방진행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전대기련)소속 서울·경인지역 기자 30여명은 조선일보사 앞에서 '한총련 대의원대회 및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촉구·관파 보도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전대기련 문화분과 대표 손신우(연세대학교·문화부장)장은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은 정부추진체제로도 2주째 2만 명을 해어리는 구조조정의 여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파업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측은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왜곡·관파, 거짓보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후 50여명의 기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조선일보에 대한 전대기련 규탄성명서 등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1시간 반가량 집회진행을 진행했다.

전대기련 서울동부지부장 윤일성(연세대학교·편집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지조차 언론을 통해 제대로 접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제도언론은 권력의 시녀노릇을 중단하라"고 밝히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제도언론의 보도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집회에 참가한 50여명의 기자들은 "한총련은 대의원대회까지 총각대에서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전명하고 평화적 개혁 보장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총각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대학을 완전봉쇄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관세언론의 행각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집회가 끝난후 전대기련 경인지부장 김상원(한경대신문사·편집국장)과 윤일성(전대기련동부지부장)은 조선일보를 방문, 전대기련 명의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국대학신문공동기자단

1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주장하는 정덕진 변호사를 만나

한총련은 이적단체일 수 없다

지난달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는 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이는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원천봉쇄, 대의원 구속방향이 불거지고 있는 최근의 시점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중 한 명인 정덕진 변호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총련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원리를 수호하고 국가존립에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 문제점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폐지론, 개정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가보안법 같은 특별법의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 무엇이 위법인지에 대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런 사건을 봤을 후 소감은?

이번 판결은 내 활동이나 변호사 특별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단지 유엔 인권위와 그 동안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의를 제기했던 제반 사회단체 활동의 결과물이다.

대전지법의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 서울, 대구 등지에서는 이적단체다'라는 편견이 보드되었는데

판결문을 보면 5번과 6기는 성적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이 나오게 된 근본 문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모호한 점이 많아 내용의 해석을 여러가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예기를 한다면 대전지법 판결이 앞서나가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에 대해 대응 논의를 했는데

인권위의 활동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은 존중하는 제도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아

한총련을 비롯한 많은 민족민주단체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이번 판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이었으나 한총련이 이적단체일 수 없음을 극명히 드러내 주었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 주었다.

국가보안법 적용 기준이 서울에서 다르고 대전에서 다르고 다른 지방에서 다르다면, 그 법은 더이상 법으로서의 효력을 잃은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공동기자단

학/술/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99-1의대 대학원 사회과학 기획강좌

21세기 희망을 꿈꾸며

제2부 한국사회의 현실과 사회학적 전망

자신 재생산과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 / 5월 6일(목)
 "가족"과 "가족주의", 새로운 모색 / 5월 13일(목)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 5월 20일(목)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이론과 현실 / 5월 27일(목)
 새로운 전망: 21세기 대한사회 / 6월 3일(목)
 -김동훈(한국산업사회학회 연구위원,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의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의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엘범촬영

기간 : 5월 6일(목) ~ 5월 14일(금)
 일시 : 09:00~17:00
 장소 : 프로필 - 3전원 앞
 학사모 - 미정

취업주간

날짜	시간	장소	행사	주최
5월 11일(화)	15:00~17:00	미정	안기부설명회	취업정보센터
5월 12일(수)	15:00~17:00	미정	금융아카데미	취업정보센터
5월 13일(목)	15:00~17:00	대강당	image making	출.준
5월 14일(금)	13:00~15:00	대강당	자격증 설명회	출.준
	15:00~17:00	대강당	공기업설명회	출.준

졸업준비위원회

한총련 대대회 개최 관련 동총련의장을 만나

“한총련 대의원 대회, 기필코 성사시킬시다”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평화적 개혁의 이념을 통합하는 김대중 정권의 본질 등을 알리기 위해 선두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가고 있는 서울동부 지구총학생회장인 최 의정 학생회장(서울산업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 이번 대의원대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이번 대의원 대회의 의의는 그 의의는 역사에서 나온다.

청년학생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지 3년이 지난 지금,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 민족의 이념과 요구를 받아안은 대의원대회 성사는 학생뿐 아니라 전민중의 요구이다.

정부의 대외적 성사 필요성을 거세하고 있는데 정권은 반민중, 반민주적인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더욱더 광폭하게 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학생 및 서울 주요대학들과 각 지역에서 불심검문과 연행을 일삼는 모습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정권의 부당함과 반민주성을 폭로시켜낼 것이다.

시민선진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이 다른 것 같다. 대의원대회 개최 보좌,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지지 등에 대한 서명이나 모금운동, 소자보 붙이기 등을 통해 시민들을 진심으로 환영할 만났지만 과정 속에서 진실을 알리려 하고 노력했다. ‘힘내라’고 박수를 치며 격려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투쟁은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의원대회 성사를 위해 일로 이만한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지금 평등성당 농성단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로써 정부를 계속 압박해 나가면서 대의원대회를 끝내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이후 평등성당을 거점으로 삼고 계속 화우들을 만나면서 대의원대회 성사투쟁뿐 아니라 노동자 투쟁성사까지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한총련 대의원 대회 성사투쟁, 어떻게 진행됐나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대회

7기 한국대학총학생연맹(한총련)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4월 16-18일 3일간에 걸쳐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홍익대에서 평화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평화적 개최보장을 촉구하는 학생들을 향해 김대중 정권은 용이대와 서울 주요대학, 언론 타미널 완전봉쇄 그리고 불심검문을 자행했다.

이에 한총련은 “대의원대회 한 해동안 민중속에서 한총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16일부터 홍익대와 평등성당,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좌,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규정 철폐, 민중운동 탄압 중단, 미국의 전쟁책임을 반대’ 등의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대시민선진성을 통한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움직임은 ‘민중들의 지지와 압속에서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만들어 낸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번 대의원대회 성사투쟁은 ‘민주노총과 한총련이 연계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밝히며, 풍안대학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의원대회 장학생 추가 공권력 투입,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을 내놓았던 정부의 대의원대회 탄압에도 이항할 것이 노동자와 하노되는 연대투쟁을 실현시킨 정교로서의 의미와 지났다.

19일 새벽, 서울지하철 파업을 필두로 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노동자·학생연대의 새로운 정령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등성당에서는 농성에 돌입한 한총련 대의원 450여명이 서울지하철, 공공연명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투쟁’의 결의를 높였으며, 거리와 지하철에서 노동자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려고 매일 있는 노동자들의 집회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노동연대를 강화하는 ‘한총련 선봉대’ 역할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확고한 노동연대에 기초해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낱알이 폭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로인해 ‘김대중 퇴진’의 여론이 확산되었다.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결집을 이룩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각 지역 노조와 지역 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주의민중총연맹전국연맹, 한총련 학부모임들의, 민권공대파,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빈민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좌’와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규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또한 각계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도 조직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심신하고, 머리가 깨지는 투쟁까지 임은 채 호소차에 실려 집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나이드신 분들에게까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의 본질이었다.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를 위한 민중연대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홍익대에 들어오던 민간법 여러분들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심신하고, 머리가 깨지는 투쟁까지 임은 채 호소차에 실려 집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나이드신 분들에게까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의 본질이었다.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1차 대의원대회 성사를 위한 투쟁,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차 대의원대회 성사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 한총련은 “대의원 대회 평화적 개최가 보장될 때까지 노동자, 민중과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의지는 오는 14일 진행될 ‘한총련 동맹투쟁’과 15일 ‘민중대회’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분출될 전망이다.

김경신 기자

한총련 대의원 대회 이모저모

홍익대

시민들의 감동적 투쟁 지난 17일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홍익대의 병력을 밀어내는 상황이 발생, 한총련의 평화적 대의원대회 보장을 요구하는 선진성을 전행하던 학생들이 큰 힘을 받았고, 학생들의 선진성을 들은 시민 대원이 도로를 매우 담당한 공권력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마피 폭력을 사용, 마찰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끝내 폭력에 양보하지 않고 모두 물러나는 감동적인 경관을 연출했다. 시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투쟁의 열정이었다.

공권력의 폭력은 어디까지인가? 공권력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를 위한 민중연대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홍익대에 들어오던 민간법 여러분들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심신하고, 머리가 깨지는 투쟁까지 임은 채 호소차에 실려 집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나이드신 분들에게까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의 본질이었다.

내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정부와 한총련의 극심한 불심검문에 목대 학생들이 물론 시민들까지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기자단에도 학생중이 없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해 받은 동등 구르는 학생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연행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홍대 정문 수위이저서 절반에 한 목소리로 한마디. “내 집에 못 들어가게 하면 쓰나”

전경들의 웃음 홍대에서 선진성을 진행하던 학생들은 매일 출발하던 대시민선진성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선봉대원들의 ‘기미진’ 선진성을 비롯해 ‘탈레반’과 ‘118 PCS’ 광고를 패러디한 장기자랑, 등동기구 광고를 모방한 ‘피워 한총련’ 등 기발한 장기자랑과 선진성에 학생과 시민은 하나가 되었다. 특히 폭력경찰의 흉내를 익살스럽게 내는 선봉대의 모습은 일어서서 대치하고 있던 전경들의 웃음까지 지어냈다. 장부경찰들도 정권의 비이성적인 탄압의 희생양인 뿐, 우리의 적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평등성당

단식의 필수조건 지난 21일 평등성당 농성단 250여명은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탄압 중지’ 등

의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사흘간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결의대회에서는 ‘김대중 퇴진’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등 그 결의가 드러났다. 그러나 단식을 시작하기 직전 단식단 사이의 폭속을 저어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혁명의 성지답게 평등성당 앞 약국에는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단식’에 필수적인 약을 판매한다. 알고보니 그것은 단식으로 인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속린 제’ 약이었다. 농성단은 단식 전의 약을 먹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경의를 더욱 드는 후문이 전해진다.

서울시내전역

한총련의 함성으로 들끓다!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기필코 성사해내고자 마다겠다는 결의로 지난 15일부터 서울시민들을 만나는 ‘대시민선진성’을 진행하고 있는 각 지역총련 선봉대들의 열기와 함성은 서울 시내 전역을 흔들고 있다.

모든 지하철역에 공권력을 투입해 학생들의 이동을 완전봉쇄하고 있는 정권의 탄압에 맞서 학생들은 ‘민중’ ‘투쟁’ ‘노련’로 변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진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 호응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선봉대는 공권력의 배치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지하철에서 거리로 뛰쳐나와 시민들을 만나겠다. 그 해방만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선봉대들의 구미이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지하철 선진성을 지켜보던 이영삼(화사, 38, 남)씨는 “경쟁을 패러디하고 민중들의 삶을 나쁘게 할려고 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불만은 현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를 선진성하고 함께 뛰어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활동이 대견스럽다”고 밝혔다.

△박정자(주부, 45, 여)씨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할까 싶었지만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 조폭조폭 설명해주는 걸 들으면 딱 맞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대중 정권이 왜 학생들이 평화적으으 하겠다는 대의원대회를 탄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금을 하던 시민 송모씨(살림자, 55, 남)씨는 “정리하고 후 활동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활동이 큰 힘이 된다. 능력에 안되는 많은 모금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해 선진성을 하던 선봉대에도 숙연하게 했다. 김경신 기자



사회단신

서총련-평양시 학생위원회 및 범청학련, 집의 대회 진행

지난 28일(수) 서울에서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서총련-평양시 학생위원회 공동 결의대회’와 ‘4·28 범청학련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평양시 학생위원회,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동시에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평양시 학생위원회는 서총련으로 사신을 보내와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열 선택사이의 대결이 전개되어 격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민족의 생명책임을 지고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 공동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범청학련과 서총련-평양시 학생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대학신문사 기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전면적 민간교류 허용을 요구합니다



민간교류,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새천년을 흔히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리틀엔젤스·김순권 옥수수 박사·유홍준 교수·임수경·문익환목사·황선·김대만 한총련대표 방북,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추경대회 실무추진)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자주 만나야 이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북북동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일을 이루기위해 넘어야 하는 산이 많습니다. 바로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란 산이 남북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제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전면적 민간교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그 날 7천만 겨레는 평양 톨케이트를 지나 남북동포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씩없이 흐르는 민간교류의 물결, 이제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교육정책은 말한다 ⑦-미국의 교육정책사 중

미국 지배논리 일색 '50년대 교과서'

원조 미끼로 친미시대·반공교육·군사교육 강요



교육정책은 말한다

순서

- ① 일제침략사상
- ② 일제침략사하
- ③ 타국의 교육정책 사례
- ④ 타국의 교육정책 사례2
- ⑤ 현대 제국주의 아에서의 침략과정
- ⑥ 미국의 교육정책사상
- ⑦ 미국의 교육정책사중
- ⑧ 미국의 교육정책사하
- ⑨ 제국주의 교육정책 총괄
- ⑩ 교육 정책은 말한다

전쟁기(1950년-1953년)
1950년 전쟁이 일어난 후 미국은 스스로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한편, 남한 민중들에 대한 반공전쟁과 반공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학생들에 대한 반공의식 고취를 교육목표로 정한 이승만정권은 1951년 2월 "필수교육의 신념을 바탕으로 정국과 국제 집단안보정권의 인식을 명확히 해 진정생활을 지도하는데 목적을 둔다"라는 내용을 담은 "정신하 교육특별조치요령"을 발표했다.



교육부장관이 된 백낙준과 유진우에 의해 고안돼 1951년 5월 4일 발표된 교육부령인 '태화교육에 관한 정시특별조치령'에 의거한 '정시연합대학'이다. 이는 바로 1951년 3월부터 원주 대학, 피난대학 및 학장이 모은 국·공·사립대학을 각 시·도 단위로 통합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미국과 이승만정권은 이 '정시연합대학'을 통해 학생들 속에 민족분열주의와 숭미시대의식, 반공반북의식, 개인이기주의와 물질숭배의식을 전파했다. 이는 당시 강의내용으로 '전쟁과 법률', '전쟁과 경제', '전쟁과 사상', '미소주의 비판', '군사강화', '민주주의의 개성', '유네스코사업과 활동', '미국 민주주의 발달사' 등이 포함되었던 사실과 1951년 11월 1일 대통령령 577호로 발표된 '학생군사훈련 실시령'에 따라 각 대학에 배속교과를 두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전쟁에 무자비로 동원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되자 각계각층의 민중들 속에서 학생들을 전쟁에 마구 동원하는데 대해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타쳐나오기 시작했다. 민중의 비난에 직면한 미국과 이승만정권은 정시특별조치령을 철회하고 정시연합대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전과 관련나 특별훈수 작성에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병역기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협박에 불과했다. 때문에 가난한 민중의 자녀들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그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라고는 특권층의 자녀들 뿐이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예측학을 강화하기 위한 친미시대 교육을 추진하면서 한국 내에 사상문화침투기구와 인적 및 물질 수단을 확대했다. 한국문제를 정면적으로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이 더욱 늘어났고 한국주제 '비공보안'을 비롯한 미국의 사상문화침투기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원조를 미끼로 한국교육을 미국식 식민지 교육체로 만드는 작업은 주로 한국주제 '미국제개발적 교육'과 '기술원조'에 담겼다. 또한 미류점자본이 만든 민간단체형식의 사상문화침투기구인 각종 '재단' 역시 그 작업에 큰 몫을 담당했다. 특히 미류점자본이 만든 각종 '재단'은 표면상으로는 비영리적인 민간단체로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이바지하기 위해 대학·연구소·병원 등에 융자하며, 외국과 문화적 연계를 추진시키는 등 평화화를 위한 노력을 도모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중들 속에 민족분열주의와 숭미시대의식,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의식, 개인이기주의와 물질숭배의식을 전파하고, 미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과학자·기술자들을 앞세워 미국의 한국 지배를 강화하는데 기본수단이 있었다. 그래서 전후 '이세

재단'을 비롯한 여러 '재단'이 한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사상문화침투를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교육원조는 산업교육 강화와 극한 서울대학교 집중 투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원조에 투입된 원조액은 대부분이 교육계에서 친미인사를 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원조를 산업교육분야에 많이 투자했던 의도는 남한정체를 미국의 하청경제로 전락시키며 그것을 도맡아 나갈 단순 기능인력을 많이 양산해나기 위해서였다.

또한 서울대에 집중 투자한 것은 적은 돈으로 한 대학을 집중해 미국식 교육체제를 세움으로써 다른 대학이 그것을 모범로 삼아 그대로 따르게 하려는 의도와 서울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친미인사(群)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또한 교환교수, 국제적 문화교류, 문화사업 교환을 기본으로, 한국 교수와 학생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미국식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침투시켜 친미인사를 만든 다음 한국 교육부와 그 신하기구에 배치함으로써 사상문화침투기구를 강화했다.

미국의 '사상문화침투' 이렇게 진행됐다

대학, 연구소, 출판사 재정지원으로 침투

'이세재단'은 극동과 동남아에서 미국 의 팽창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엘리 포너가 독점재벌에 의해 1951년 창설되었다.

'이세재단'은 한국대학은 미국의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과 학자들을 이용하기 위해 1954년 7월에 설립된 이래 10년간 3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이세재단' 한국지부'에서 직접 운영한 '한국연구원'은 사회학과 각 부문의 학자들을 망라한 '사회과학연구원'을 만들고,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주어 사상문화침투와 식민지 예측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은 이 기구를 통해 서울대학교에 사범대학원과 학생 지도연구소 등을 설치했으며, '고려대학교 이세이문화연구소', '한국교육학회' 등이 자금을 대주면서 사상문화침투에 이용했다. 그들은 이와함께 수많은 미국의 학자·교수들을 한국에 보내 반공사상과 숭미시대주의를 전파하고, 미국식 생활양식을 유포시키면서 한국교육을 미국식 식민지 교육체로 만드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포들러재단'은 사전전환, 국립박물관, 민족예술 부흥, 공중위생 전문가와 문

화분야에서 친미인사를 양성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진단학회', '한국학회',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동우문화사' 등에 연구비와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해 미국의 사상문화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포들러'도 '고려대학교 이세이문화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재정적 예측학을 피웠으며, '하버드연합학회'는 '동아문화연구소 한국지부'를 통해 매년 30만달러의 연구비조와 출판비를 일종의 형식으로 주어 '고려대학교 이세이문화연구소', '동방학연구소' 등을 자기네 부속기관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전후 '유네스코'를 통해서도 사상문화침투를 강화했다. 미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하여금 전후 한국의 과학·교육·문화단체들과 과학자·교육자·문화인들을 하여금 국제회의 참가, 외국출판물 수입배분, 국제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상문화침투를 한국에 대대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게 했다.

대학부

한편 미국과 이승만정권은 국민학교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국어, 도덕, 사회생활 등과 같은 과목에서 한국전쟁 중 우리 민중에게 미군이 저질렀던 무자비한 폭력과 대규모적 이고 무지배했던 학살민행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한국민중들이 겪은 불행과 고통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도록 교과서를 왜곡해 서술하게 하고 그들 각급 학교에서 교재로 이용하게 했다. 당시 일부 교원들마저 "현재 사용하는 교육과정은 미국식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입한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1961년 8월 22일자)고 지적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정권은 학원군사화를 더욱 강화했다. 1954년 6월에는 학생들을 모두 군인으로 만드는 이른바 '학도개병방안'을 내놓고 국군의 대대적인 증강과 함께 '군부'를 고등학교

출신자로 확보하기 위해 학원군사화를 더 고쳤다. 그들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군사훈련시간을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병영에 집단적으로 끌고 가 훈련하게 했다. 그리고 반공교육과 군사훈련에서 우수한 학교는 표창장과 표창금, 국채증서지급 혜택 등과 같은 사에 강제복무하게 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미국과 이승만은 주민 친미시대 식민지 교육으로 말미암아 일부 학생들 속에서 숭미시대주의가 나타나고 도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는 후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합동통신에서는 "대형학원에 보그린 통계에 의하더라도 1955년 9월 현재 학생범위자 수는 2,200명으로 이는 지난해 총계를 훨씬 상회 수로 앞으로 커를 앞두고 더욱 늘어날 것이 예견된다" (합동통신, 1955년 11월 1일자)고 보도했다.

정민관(민족교육연구소)

전후시기(1953년-1960년)

암의 소멸
O...보건복지부에서 2005년까지 무암하기로 했던 암 예산 780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64억원에 불과... 이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고 일본 같은 경우 한 해에만 1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이에 암 환자 크로니클자 열방이 하는 말 "이러니 우리 사회의 암악인 존재가 사라질 리 없지"

O...성실한 직장 크로니클자 국민연금제도 때문에 크로니클자에 크로니클자... 자영업자 크로니클자 자기보다 월남밖에 이 적은 것을 보고 크로니클자 "몸 역시 아이 뽀뽀라 모뎀을 어려운데가 보곤" 했는데... 알고 보니 크로니클자가 골프장회원에 외 재자를 물고니는 감부라는 것. 이에 실성한 크로니클자 "경사났네... 경사났어"

O...병역비리문제에 관련된 두 사나이 노래를 부르고 크로니클자 크로니클자 돌아보나... "무정무운"의 노래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 나리 지는 영광에 살았다"
"무정무운"의 노래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 지는 영광에 살았다. 권력과 재력 속에 매이지는 부자여, 부모 함께 벼를 밟고 군대는 안간다. 안간다."
O...계속된 민중들의 총궐기 운동 속에서 언론의 왜곡보도가 극에 달했는데... 크로니클자 알아본 결과, 모 일보에서는 명 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명동성당에 갇혀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크로니클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정 말 같진 건 당사자들의 일상이야... 쏘트..."

강하있는 앙심

비둘기철판

이문벌

○ 축하합니다

- 자랑스러운 386세대의 선봉, 한국교육과 85학원 정상회의 독일교육과 85학원 김서영의 결혼식을 축하해주시고
- 때: 6월 5일 (토) 2-3시 사이
- 곳: 늘봄농원 (034) 962-8081
- P.S - 뒷풀이시간 낙너함!

(착한 후배들)

왕산골

○말립니다

- 시합은 잘 보셨죠? 시합으로 똥인 스트래스를 농활로 해결합니다. 5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전북 순창에서 백년 농활 진행시키자구요
- (하나되어 외치는 중심산인 인도어와 학생회)
- 4월 30일 May Day에 다녀온 베트남어와 33명의 정사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뜨거운으로 조국농업도 사수하려 갑시다. 분능할 갑시다.
- 때: 5월 5일(수) - 8일(토)
- 곳: 전라북도 순창군 신창은 98학원 강감수에게 해주세요.
- (다른모습, 같은 마음 제 11대 단결로범 베트남어와 학생회)
- 외대학생 여러분! 바둑을 맡겨 줄길 수 있는 '한일기원'이 생겼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한일기원 주인 이저씨)

· 사회와 현역 대 예비역 축구대회를 참가한 모든 분께 배수를 드립니다. 결과는 6:3으로 현역이 승리했습니다. (큰형님)

· 여수항우회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시합보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한 불날에 우리 모두 모여 회포나 푼시다. 곳: 제일은농원. 때: 5월 6일(목) 오후 6시 (시간순수) (여수항우회)

· 철학과 98학원 새내기 여러분! 5월 4일(화)~5일(수) 모교지 잘 갔다와요. (선배가)

'비둘기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그리운 후배에게 봄이 오는 황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황산은 이제 원만한 봄기운이 가득하겠지? 이곳 조계사에도 봄은 찾아와 새로운 삼을 향해 용솨를 치는 온갖 생명체의 기운을 짐하게 된다. 물 겨울 조계사 법당은 잠잠해지고, 이곳에 들어왔을때는 계절이 바뀌어 100여일을 여기서 보내게 될 좋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2월에 대통령 취임 1주기가 있고, 3·1절 시연도 있고 해서, 과거 군사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의해 자유를 잃어 버린 우리 수배자들에게도 자유의 봄이 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50년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펼쳐지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과거 정권의 정치 수배자들에게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



편지글-조계사 농성단 김대성군이 후배에게 띄우는 편지

“시련속에서도 역사의 발걸음은 이어진다”

이곳에는 지금 9명의 수배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비록 우리는 수배이지만 조계사 경내에서 한정된 자유를 얻어 지낸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우리 수배자들이 생활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각계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각 대학의 지지와 지원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이 커지고 있다. 또 매일 우리 투쟁의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수배자들이지만, 이곳 생활은 너무나 풍요로우며 따뜻한 인간의 정이 넘쳐난다. 아마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 여론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보안법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중의 보수수구 세력들은 이 법에 자신의 밥줄이 달려 있기에, 이 법을 자신들의 생명줄로 여기며, 안간힘을 쓰고 억지를 부리며, 진실한 목소리들을 억누르려고 한다. 한층더 처음 이쪽 단계를 규정되던 97년, 김영삼 정권은 친문학적인 대신 지금도 공지에 들려 있었고, 그 아들 김형철은 온갖 부정부

비리의 주범으로 감옥에 수감된 때였다. 김영삼 정권이 자신의 인격적 침묵의 퇴임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한층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에 이성적으로 맞서지 못하던,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며, 정의와 진실이 살아 남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자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곤 한다. 과연 이곳 조계사 대웅전 옆 천막에도 새로운 천년은 다가오는 것일까? 새로

운 천년은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일까?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한층에 대한 탄압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수배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청춘들이 있기에 아직 나는 희망의 근거지를 지을 수 있구나.

너도 기억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얼마전 '도피 중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겠다'한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 농성단은 잊지 않고 있

다. 또한 우리는 법무장관이 정치 수배자들의 문제를 최대한 불구속에 기소유예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간 검열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굴복과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풀어주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심지어 요즘에는 수배자 모두의 지출서를 보고 마음에 들면 불구속 수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얼마전 TV를 보아서 너도 알겠지만, 이제

얼마전 잡지에 현정부의 공안정책방향이 '신 공간' 이 아니냐는 말에 정현구 현직 공간 부장은 '우리 공간 검사들에게는 새로운 장부가 들어서도 바뀐 것은 없다'는 말과 '신공간'은 없고 다만 '전공안'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했다. 과연 이런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직도 있긴 한지...예초에 새로운 정부에게 기대감을 가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여러차례 느끼는구나. 그러나 역사는 그 절음을 멈추어 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민중의 의해 아주 서서히 점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 이제 우리는 수배해제의 문제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 부족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백히 하며, 원칙적으로 정치 수배자들을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아주 단단하게 또 투쟁의 길을 나서려나.

후배야! 우리 수배자들은 한국 사회를 육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서, 이땅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살아 숨쉬는 세상, 지구와 민주 통일된 천만민 그 세상을 위해 우리는 또 수배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낮과 밤의 기운은 차이나지 못하구나! 건강 조심하렴... 또 연락하렴!!

4월 13일 조계사 농성 250일째 97년도 한층련 대의원 김대성 (97년 경성대 학생회장·무역 5)

추신: 달빛 알박 속에서 수배의 길에 나서는 7기 한층련 대의원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렴...

수필-원울사와 대주혜혜선사의 문답에서 찾는 교훈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신아의 세월은 꽃피고 잎이 피고 짐처럼 없애고 오고 가지만 하고 세월은 입욕과 졸업, 개강과 종강을 통하여 학생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그렇게 흘러간다.

매년 대학이 바다 새로운 학생들과 정교 또는 교양과목을 통하여 만나고 헤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과목에 관계없이 첫 강의 시간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내가 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혀지고 심지어는 나의 얼굴과 이름까지 망각된다 하더라도 내 강의의 수강한 학생들이 꼭 기억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이야기가 있다. "배고르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飢來喫飯 困來眠床)"

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꿈을 꾸고 있는 걸세. 그러나 나는 밥을 먹을 때면 밥만 먹고 잠을 잘 땀 흘린 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나와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원(源) 율사가 묻고 대주혜혜(大珠慧海) 선사가 답한 문답이다.

그렇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고 다른 생각을 일체 갖지 않아 마음을 비기가 어렵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 고통받고 괴로워하기도 하며 때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그 수업과 관계없는 다른 과목 레포트 쓰기도 하며 망념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켜 꾸며낸 허상의 세계에다 자기를 투영시키며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한다. 그러나 흘러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으며 걱정과 조바심으로 불확실한 미래가 벌어지는 게 아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잃는 순간 말장에 사로잡히는 순간 수업은 놓치게 된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진리를 체득하려는 마음과 공부에 임하는 마음은 풀이 아닐 것이다. 때 순간 품과 마음이 다른 어느 것이 아닌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니 우리는 좀 더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기래적반(飢來喫飯), 밥을 먹을 때면 밥만 먹는다. 다음 학기에도 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 줄 것이다.

김연규 (회계과 교수)



고건시장님! 우리들은 지휘팔팔에 가담한 노동자들의 아내들입니다. 살림하는 것도 제쳐두고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는 남편들의 파업을 대한 어려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휘팔팔 입구를 전 경로로 막아놓고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불쌍파업이나, 전방수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돌봐주세요. 수 밖에 없는 담당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지나 4월 29일(금) 시청역앞에서 항의방문하는 노동자의 아내들

사 진 수 필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타고 코피가 까지고 입술이 찢기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텨는 당산... 당산이 있기에, 우리는 삽니다. 자, 강편지를 날리세요.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기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DJ를 향하여 강편지를 날리세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당신, 한총련 ... 화이팅

민족자주연론 외대학보